

환경부 장관, 청년 기업가와 녹색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 김완섭 장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방문 후 지원 현황 살피고 청년기업가들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기업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녹색기업체를 운영하는 청년기업가들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준공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는 현재 환경기업 118개사가 입주했으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실증화 지원, △해외진출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1,024억 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67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왔다.

김완섭 장관은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인 (주)테라클의 실증 시설을 둘러본다. (주)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저급의 폐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상용화하여 최근 1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녹색기업이다.

이어서 환경부는 창업·벤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환경부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창업기업 6개사와 함께 이곳 대강당에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연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녹색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녹색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 토크콘서트 참여기업: 베스트알 주식회사, 테라클(주), 주식회사 더데이원랩, 주식회사 잇그린, 주식회사 어글리랩, 주식회사 인베랩

올해 7월에 취임한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토크콘서트)에서 김완섭 장관은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환경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 특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환경 기준 적극 개정 등으로 녹색산업 기업을 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라며, “이뿐만 아니라 여신·보증·펀드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해외 전시회·박람회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라고 약속할 예정이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신을 가진 녹색산업 분야 청년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청년 창업기업들이 녹색산업분야에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실증·규모확대(스케일업)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방문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선 (044-201-6702)



□ **개요**

- (일시·장소) '24.8.23.(금) 10:20~11:50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 (참석자)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청년 창업기업
 - (환경부) 장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장
 - (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장, 경영기획처장, 환경산업처장, 클러스터운영단장 등
 - (기업) 테라클(주), 베스트알 주식회사 등 총 6개社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개요 >

- (명칭)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舊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
- (법적근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 (연혁)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 준공·운영('17~),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변경('22~)
-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주기업 현황) 118개 社('24.8.기준)
 - 사무실·실험실 154개실 및 파일럿테스트(실증화 단지) 66실 운영 중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20~10:30 (10')	■ 내빈 환담 및 클러스터 현황 브리핑(영상+PPT)	홍보관
10:30~10:50 (20')	■ 시설투어 및 입주기업 현장 방문(테라클)	실증화 단지 (전동카트 이동)
10:50~11:50 (60')	■ 창업·청년 녹색기업가 토크 콘서트 - 테라클(주), 베스트알 주식회사 등 총 6개 社	본부동 3층